

■ 특집 ■

알제리 전쟁과 프랑스 정주민(settler)

문 중 현

1. 들어가며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써는 아무런 뜻이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¹⁾로 시작하는 1942년 출간된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은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로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유 없는 살인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는 주인공 뫼르소의 삶은 개인과 부조리한 세계의 대결로 해석되었다. 한데, 주인공 뫼르소가 피에 누아르(Pieds-noirs)였다는 점은 『이방인』 해석에서 자주 외면되었다. 1940년대 알제(Alger)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 아랍인은(간호사와 불량배?) 개인으로, 화자로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목소리도 없다. 카뮈는 “아랍인 한패가 담뱃가게 진열장 앞에 기대서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우리를 마치 돌이나 죽은 나무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 같았다”라고 묘사했지만, 실제 “돌이나 죽은 나무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시선의 주체는 아랍인이 아니라 피에 누아르였고, 그들 눈에 비친 아랍인이었다. 결국, 무슬림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곧 살인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²⁾

1) 알베르 카뮈, 김화영 역, 『이방인』 (서울: 민음사, 2012), 6쪽.

2) 카뮈는 뫼르소가 아랍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나는 전신이 긴장되면서 피스톨을 힘껏 움켜잡았다. 나는 권총의 미끈한 배를 매만지고 방아쇠를 가볍게 당겼다. 탕! 하는 요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일은 저질러지고 만 것이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나는 한낮의 균형과 행복스럽던 바닷가의 특이한 침묵을 깨트리고 말았다. 이어서 나는 굳어버린 몸뚱어리에 다시 네 방을 쏘았다. 총알은 눈에 뜨이지 않게 깊이 들어박혔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린 네 토막의 짧은 노크 소리라도 같았다.”, 알베르 카뮈, 같은 책, 21-22쪽.

주인공 피르소 자신도 자신의 살인행위에 대한 동기를 몰라서, 나아가 작가인 카뮈 역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소설 속 살인사건은 19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살해와 닮았다. 짙은 알제리의 풍경과 알제의 인간군상을 가득 담고 있는 소설 속 땅의 주인이자 지배자는 분명 피르소와 같은 피에 누아르였다.

소설 속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먼저 피르소가 살해에 이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레몽은 자신의 정부인 여성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이었다. 또한, 거리에서 “그와 싸움을 한 사나이는 그 여자의 오빠라는 것이었다. 여자의 살림을 그가 꾸려 주었다는 말도 했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레몽의 정부는 아랍 여성이었고, 피르소가 살해한 폭력적인 레몽으로부터 누이를 지키려는 남성의 아랍인 친구였다. 어쩌면 피르소의 행위는 원주민 여성을 지키려는 맘에 전 푸른 작업복을 입은 무슬림 남성을 살해한 식민지의 지배자, 정복자, 약탈자, 인종주의자의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62년 알제리 독립을 위한 예비양 조약이 체결되자, 3월~5월 약 20만 명, 6월 모로코와 튀니지의 국경선이 열리면서 약 35만 명 등 약 70만 명의 유럽계 알제리 정주민이 고향을 떠났다. 피에 누아르로 불리는 이들에게 알제리는 자신들의 태어나고 살아온 고향이자 지켜야 할 땅이었다. 프랑스 식민주의의 타자화는 식민지 원주민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 19세기부터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에 이주한 정주민을 1940년대부터 피에 누아르라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의미도 낮은 이름으로 불렀다. ‘검은 발’을 의미하는 피에 누아르는 ‘더러운 발(pieds sales)’이라는 의미도 지녔기 때문에 조롱하는 뉘앙스를 지녔는데, 처음에는 알제리의 원주민인 아랍인들을 의미하였다. 유럽계 정주민은 자신들을 알제리인이라고 생각했기에 원주민을 피에 누아르로 불렀으나, 알제리 독립을 위한 전쟁 중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알제리인’임을 내세우면서, 유럽계 정주민에게 피에 누아르라는 이름을 돌려주었다.³⁾ 의미의 역전은 전쟁과 함께 고착화 되었고, 오늘날까지 아랍인, 원주민과 알제리 프랑스인을 나누는 이름이 되었다. 또한, 유럽계 알제리의 정주민을 의미하는 피에 누아르가 명확히 집단적 정체성을 내포하게 된 것은 1962년 이후였다. 스페인계, 이탈리아

3) Éric Savarese, “Qu’est-ce qu’un rapatrié ? À propos des pieds-noirs rapatriés d’Algérie, de 1962 à nos jours”, *Actes des congrès nationaux des sociétés historiques et scientifiques*, no. 126(2007), p. 206; Delpard Raphaël, *L’histoire des Pieds-noirs d’Algérie 1830-1962* (Paris: Michel Lafon, 2002), p. 39.

계, 유대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에스닉 집단인 ‘피에 누아르’는 탈식민 시대 프랑스에 귀환한 이후 만들어졌다.

‘피에 누아르’, 알제리 프랑스인(Français d’Algérie)은 프랑스 본토인과 식민지 거주민(colonial)들에게 고체도 액체도 아닌 ‘점액질’ 같은 존재였다.⁴⁾ 자신을 알제리 프랑스인, 유럽계 알제리인, 북아프리카 유럽인 등으로 간주했지만, 알제리 독립 이전까지만 해도 본토 프랑스인에게는 온전한 프랑스인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웠고, 알제리인이라 인정하기도 불명확한 사람들이었다. ‘피에 누아르’가 부정적이며 폄훼하는 뉘앙스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 백인이라는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보증하는 호명이었다. 그래서 유럽계 정주민들 역시 ‘피에 누아르’를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순수한 프랑스인과 구분되는 프랑스인이지만, 원주민은 가지지 못한 식민지 사회에서의 특권을 가진 꼴롱(colon)이었다. 식민모국인과 원주민 사이에 놓인 양가적 정체성이야말로 지배받는 자이자, 지배하는 자, 차별받는 자이자, 차별하는자였던 꼴롱의 불안한 심리적 특징을 보여준다.

피에 누아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1962년 알제리 독립 이전과 그 이후라는 시대적 구분과 함께 지중해 양안이라는 공간적 분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2년 이전 피에 누아르는 알제리에 뿌리내린 유럽계 정주민으로서 그 땅의 주인이었다. 유럽을 떠나 북아프리카에 정주한 이주민에게 프랑스 시민권은 인종적 특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었고, 무슬림 원주민에 대한 지배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보루였다. 한편, 알제리 독립 이후 쫓겨나다시피 프랑스에 정착해야만 했던 피에 누아르에게 프랑스는 자신들을 배신한 조국이었고, 뿌리뽑혔다가 다시 뿌리내려야 할 또 다른 정주지였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과 집, 조상의 묘,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낳았다. 탈식민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가 준비한 모국송환정책은 준비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 40만 명이 5년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정착지원 계획을 수립했지만, 1962년 여름에만 약 50만 명이 들어왔다.⁵⁾ 갑작스러운 수많은 피에 누아르의 입국은 프랑스인들에게도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고, 이름만 조국인 낯선 땅에 정착해야 했던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본토 프랑스인들이 여름 바캉스를

4) 지그문트 바우만은 『홀로코스트와 현대성』에서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의 유대인들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를 ‘점액질’과 같은 존재로 정의한 바 있다.

5) Pierre Baillet, “L’intégration Des Rapatriés d’Algérie en France”, *Population*, vol. 30, no. 2(1975), p. 303.

준비하며 떠들썩했을 때, 피에 누아르는 꼴롱이라는 편견과 무관심을 마주해야만 했다.⁶⁾

유럽에서 알제리로, 알제리에서 다시 프랑스로 2번이나 고향을 떠나야 했던 피에 누아르는 이주, 정주, 이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졌다. 이 글은 프랑스인과 원주민 사이의 유럽인이었던 그들이 가졌던 정체성의 기원과 함께 알제리 전쟁 중 나타난 변화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박탈당한 고향에 대한 향수, 전쟁과 탈출의 기억을 간직한 채 피에 누아르는 프랑스 땅에서 본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며 거듭났다. 탈식민 시대 프랑스의 기억 전쟁(*guerres de mémoires*)의 주체로 소환되는 피에 누아르의 역사는 오늘날 프랑스 사회의 기억, 역사, 정치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피할 수 없는 과거이다.

2. 유럽계 이주민의 정착 - 프랑스인과 원주민 사이의 유럽인

1830년 알제리 침공으로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식민화는 제3공화정 수립 이후 정주식민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망한 농민, 실업자가 된 노동자, 정치적 망명자, 추방자, 모험가들, 등 다양한 동기를 지닌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혹은 부자가 되어 성공하기 위해 지중해를 건너는 배에 몸을 실었다. 1870년대 프랑스는 식민지 동화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바,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 중에서도 하나의 식민지가 아닌 본토의 연장에 놓여있는 지방(province)으로 승격되었다. 알제리는 3개의 도(département)로 분할되었고 내무부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알제리는 여전히 행정명령과 과건된 총독이 통치하는 곳으로 식민모국이 제정한 헌법의 효력이 중지되는 예외상태에 놓인 식민지였다. 초기 이주한 프랑스의 이주자들은 다른 식민지 이주자와 달리 몇 가지 특권을 가졌는데, 1890년부터 나타난 자유알제리(l'Algérie libre) 운동은 프랑스 정주민의 자치권을 더욱더 요구하였다. 1900년에 이르러 다른 식민지에는 없었던 예산 심의회가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행사할 정도였다.

알제리가 다른 식민지와 구별되는 도로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의 프랑스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프랑스에서 알제리로의 이주정책

6) William B. Cohen, "Pied-Noir Memory, History, and the Algerian War", in Andrea L. Smith ed., *Europe's Invisible Migrant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3), pp. 129-130.

은 실패에 가까웠다. 1856년 10만여 명에 불과한 인구가 한 세기가 지난 이후인 1954년 100만여 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이었던 유럽계 이주자를 향한 적극적 귀화정책을 실행한 결과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스위스, 독일 등 출신의 유럽계 이주자들은 제3공화정에 의해 식민지로 개발되기 이전부터 알제리에 정착하였다. 특히 스페인에서 이주해 온 정착민의 수가 많았는데, 미약한 증가세의 프랑스계 정주민 인구수는 ‘외국인 공포’를 낳았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계 정주민이 늘어가는 것에 불안을 느꼈고, 프랑스인으로 동화되지 않은 그들을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결국, 1889년 6월 국적법(loi du 26 juin 1889)에 따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태어난 곳이 알제리면 조건 없이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였다. 새로운 국적법은 프랑스 국적자의 수를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시켰다. 비록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정주민도 무시할 만한 수는 아니었지만⁷⁾, 유럽계 정주민과 프랑스계 정주민 사이의 혼혈은 점차 프랑스와 분리된, 알제리를 고향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을 낳았다. 꼴롱의 자치권을 강조하던 운동은 “아프리카의 미국”, “새로운 인종”, “새로운 프랑스” 등을 내세우며 이른바 ‘알제리주의(algerianisme)’로 나아갔다.⁸⁾

한데, 알제리의 주인이 된 유럽계 정주민에게 가장 큰 불안은 원주민 인구의 증가였다. 외국인이었던 유럽계 정주민을 프랑스인으로 만들었음에도, 프랑스인은 알제리에서 인구수로서는 압도적인 소수였다. 1830년 약 3백만, 1872년 약 2백 십만에 불과했던 원주민의 인구는 20세기 초반에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 1920년대 알제리 전체 인구의 약 14%에 달했던 유럽계 정주민의 인구비율은 1954년에는 10%로 감소했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려웠다. 늘어만 가는 원주민 인구의 증가는 의도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한 결과였다. 만일 압도적 다수인 원주민의 동일한 참정권을 가진다면 꼴롱으로서의 특권이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은 알제리 사회의 개혁을 가로막는 힘의 원천이었다.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알제리 식민 영토를 통치하는 데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초기 유럽계 정주민은 대다수는 땅을 얻어 농사를 짓고자 농촌에

7) 1911년 오랑(Oran)의 경우 프랑스계 주민이 약 95,000명, 스페인계 주민이 약 92,000명이었지만, 93,000명의 스페인 국적자 정주민이 있었다. Benjamin Stora, *Histoire de l'Algérie coloniale(1830-1954)* (Paris: La Découverte, 2004), p. 31.

8) 박단 편, 『역사 속의 유로메나: 교류와 갈등의 역사』 (서울: 에코리브르, 2021), 200-206쪽.

정착하였지만, 더 나은 삶의 질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871년 정주민 중 60%에 불과했던 도시인구가 1926년 71.4%, 1954년 80%에 달하게 되면서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유럽계 정주민의 수는 줄어만 갔다.⁹⁾ 이러한 도시화는 식민지 통치에 반발하는 1871년 베르베르인의 반란, 알제리 전쟁 중 농촌 지역에서의 게릴라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착’ 정책 등 농촌에서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식민정부의 노력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알제리 전체 면적에서 끌롱이 점유하는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은 프랑스 식민정부의 전국적 통치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또한, 원주민들의 도시이주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오랑(Oran), 시디 벨 아베(Sidi-Bel-Abbès), 알제(Alger), 본(Bône), 필립빌(Philippeville)을 제외하면 정주민의 인구는 대다수 도시에서도 다수가 아니었다. 오랑(Oran)만이 1950년 25만여 명의 유럽계 정주민이 거주해 다른 알제리 도시들과는 유럽계 정주민이 인구의 다수를 형성한 유일한 도시였다.¹⁰⁾ 도시에서 인종간 결혼 금지법, 거주지 분리법 같은 인종적 분리가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인종적 통합 노력도 없었다. 끌롱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원주민과 접촉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알베르 카뮈는 “만일 내가 예를 들어 한 아랍 농부, 카빌인 양치기를 북쪽 도시에서 온 상인보다 더 가깝다고 느낀다면, 식민주의가 만든 자연적 경계나 인위적인 해자보다, 우리를 위해, 같은 하늘과 절대적인 자연과 우리 공동체의 운명은 더 견고했을 것이다”¹¹⁾라고 밝혔듯이 끌롱에 의한 무슬림 원주민 차별은 알제리 독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농촌에 거주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정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지역적 유대가 형성되었을지라도, 도시에서는 인종 분리가 더 명확했다.

1865년 7월 상원 결의로 유럽계 정주민과 무슬림 원주민들의 차별이 법률로써 규정되었다.¹²⁾ 원주민은 프랑스 국적자로 인정받아 외국인 신분

9) Kamel Kateb, *Européens, « indigènes » et juifs en Algérie, 1830-1962* (Paris: PUF, 2001), pp. 69-71.

10) Benjamin Stora, *Algérie 1954, une chute au ralenti* (Editions de l'Aube, 2012), p. 71.

11) 재인용. Marie Muyl, *Les Français d'Algérie : socio-histoire d'une identité*, Thèse (Univ. Paris I, 2007), p. 95.

12) 1865년 7월 14일 원로원 결의는 다음과 같다. “무슬림 원주민은 프랑스인이지만 계속해서 이슬람법으로 규제된다. 무슬림 원주민은 육군과 해군에 복무하는 것이 허용된다. 무슬림 원주민은 알제리의 공직과 민간부문 직책에 임용될 수 있다. 무슬림 원주민은 요청에 따라 프랑스 시민의 권리를 누리는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에서는 배제되었다. 그들은 프랑스 시민법에서 부여된 권리를 가진 개인이 아니라 무슬림 법률이 적용되는 집단이었다. 비록 개인적 자격으로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무슬림 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실질적인 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무슬림 원주민은 많지 않았다.¹³⁾ 또한,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거부되는 경우도 많았고, 귀화절차를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시민권을 가진 무슬림은 동등한 프랑스인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었다.¹⁴⁾

프랑스 정부는 여러 차례 알제리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원주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원주민들이 북아프리카군으로 징병 되자 다시 시민권 부여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19년 2월 시민권 확대를 위해 법률이 상원을 거쳐 통과되었다. 원주민 대표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방의회에서의 참정권 개혁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1919년 2월 법령은 원주민 대표자 선출 확대를 위해 시의회 투표권을 40만 명에게, 예산심의위원회, 도의회 투표권을 10만 명에게 부여했다.¹⁵⁾ 무슬림 원주민의 국회의원 선출 요구는 거부되었으나, 이 법령으로 지방선거 참여는 확대되면서, 참정권을 둘러싼 차별적 질서에는 균열이 생겼다.

1931년 알제리 총독을 역임했던 상원의원 모리스 비올레뜨(Maurice Violette)는 학력 수준, 자격증, 훈장 수여 등의 기준으로 무슬림으로서의 개인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인권연맹(Ligue des droits de l'homme)’ 소속의 정치인이었던 그는 『알제리는 살아남을 것인가』(L'Algérie vivra-t-elle?)에서 풀롱의 특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20~30년 내 알제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과도기적 단계로서 무슬림에게 참정권을 더욱 확대하려는 이 법안은 프랑스와 알제리의 경계, 정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시도였다. 그렇지만 알제리의 완전한 프랑스화를 목표로 한 비올레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 프랑스 민법과 공법으로 규제된다.”(제1조).

13) 1870년까지 무슬림 귀화신청은 약 200건, 유대인의 귀화신청은 152건에 불과했다.

14) 질 망스롱, 우무상 역, 『프랑스 공화국 식민사 입문』(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3), 228-229쪽.

15) 알제리 무슬림의 선거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Charles-Robert Ageron, “Le premier vote de l'Algérie musulmane : les élections du Collège musulman algérien 1919-1920”, in Charles-Robert Ageron (dir.), *Genèse de l'Algérie algérienne, Vol. 2* (Saint-Denis: Éditions Bouchène, 2005), pp. 179-192.

뜨의 계획은 유럽계 정주민의 극심한 반발로 실행되지 못했다.¹⁶⁾

유럽계 정주민들이 보인 참정권 확대에 대한 적극적 반대 의지는 한편으로 알제리 원주민의 시민권을 요구하는 운동을 자극하는 반작용을 불러왔다. 1936년 6월 무슬림 의회는 정주민과 동등한, 원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완전한 시민권을 요구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원주민과 정주민의 상반된 극단적 정치적 요구 앞에서 우물쭈물할 뿐이었다. 인민전선 정부에서 블룸-비올레트 계획으로 재추진되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의회는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하지조차 못했고, 어떠한 행정명령도 내리지 못했다. 1931년과 1939년 사이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1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결국, 원주민들은 의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차별 해소를 기대하지 않고, 프랑스와 완전히 단절된 독립된 주권국가 건설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¹⁷⁾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계 정주민은 원주민의 저항과 본국 정부의 탈식민 정책 사이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알제리의 프랑스인이었던 정주민은 정부가 추진하는 알제리 사회의 개혁에 저항하는 걸림돌이었고, 내전을 방지하려는 식민모국 정부의 개혁시도를 좌절시켰다.

식민화 초기부터 유럽계 프랑스인들과 프랑스계 프랑스인들 사이의 벽은 높았다. 토지를 박탈당한 원주민들이 가장 낮은 계층에 놓여 저임금과 빈곤에 시달렸지만, 꼴롱 역시 프랑스에서 이주해 온 프랑스인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다.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프랑스인이었기에 온전히 시민으로서 가진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하지 못했다.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에서도 차별은 나타났다. 프랑스인이 아동 한 명당 60프랑의 수당을 받았다면, 꼴롱은 25~30프랑을 받았다. 알제리의 행정관료, 군, 경찰 등 고위공무원과 은행장, 경영인, 전문직 종사자 모두 프랑스인들이었고,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등에서 온 가난한 이주민들은 문맹률도 높아서 법적 보호와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¹⁸⁾ 귀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차 세계대전에 징병당해 참전한 사상자의 가족들이 군인연금을 받

16) Charles-Robert Ageron, *De l'Algérie française à l'Algérie algérienne* (Paris: Editions Bouchène, 2005), pp. 411-415.

17) Abderrahmane Bouchène, Jean-Pierre Peyroulou, Ouanassa Siari Tengour, Sylvie Thénault (dir.), *Histoire de l'Algérie à la période coloniale, 1830-1962* (Paris: Découverte - Barzakh, 2012), pp. 633-635.

18) Marie Muyl, *Les Français d'Algérie : socio-histoire d'une identité*, op. cit., p. 111.

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자녀가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국적의 풀롱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알제리의 풀롱들은 본토 프랑스인에 대한 열등감을 지니고 있었는데, 다수의 성인 남성의 경우 풀롱 여성보다는 프랑스 출신의 프랑스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였다. 그들에게 프랑스 여성은 더 우아하고, 더욱 아름답다우며 세련된 배우자였다. 본토의 프랑스인은 진정한 프랑스인이었고 풀롱은 아무리 프랑스인척하여도 그에는 미치지 못하는 프랑스인이었다.

제도화된 차별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는 풀롱에게 자신들이 본토인과 다르다는 생각을 심어주었다. 북아프리카에서 자란 이들에게 프랑스의 풍습과 습속, 관행 등은 어색하게 다가왔다. 풀롱들은 본토에서 온 전학생 프랑스인들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학교에서부터 인식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프랑스인보다 더 활기차고, 적극적이며, 생명력 있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문화를 지녔다고 자부해서 때로는 자신들이 본토 프랑스인보다 더 프랑스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다.¹⁹⁾

비록 사회, 경제적으로 본토 프랑스인보다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지만, 이들이 가진 식민지 콤플렉스는 양가적이었다. 자신들이 프랑스의 일부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프랑스보다 더 프랑스적이라는 우월감도 동시에 가졌다. 이들은 본토 프랑스인을 프랑스의 프랑스인 (Français de France), 프랑가위(Frangaoui), 파토(Patos)로 부르며 자신들만의 방언인 파타우에트(pataouète)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경제 부분에서도 풀롱은 자부심을 품었다. 풀롱들은 알제리 덕분에 프랑스 경제가 부흥, 유지된다고 생각했다. 알제리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포도주, 아그뤼프(agrume), 곡물, 목화 등의 농산물은 알제리 땅의 작열하는 태양, 높은 생명력, 진한 노동의 땀을 상징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알제리 경제는 산업생산을 위해 필요한 천연자원을 공급하고, 프랑스 본국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시장 역할을 담당하고 보조하는 프랑스 본토의 하위 경제 중 일부였다. 식민지 경제체제 아래 프랑스 본토와의 불평등 교역은 알제리 경제를 저발전 상태에 빠트리는 주된 요인으로 비난받았다. 하지만, 프랑스와의 경제적 단절은 알제리 경제의 고립을 낳아 경제

19) 카뮈는 『이방인』에서 뫼르소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전에 잠시 파리에서 산 일이 있다고 말하자, 어쩔더냐고 묻는 것이었다. “더러운 도시야. 비둘기들도 보이지만, 뜰 안은 어두컴컴하고, 사람들은 너무 피부가 창백하지”하고 나는 대답하였다.“

의 과국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경제체제는 유지될 수 있었다.

꼴롱의 이동 또한 프랑스인에 비해 자유롭지 못했다. 프랑스인은 알제리를 조건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지만, 꼴롱은 프랑스로 향하는 세관, 출입국사무소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본토 프랑스인과 구별되는 꼴롱의 의식 속에는 프랑스인을 흉내 내고, 닮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그들과 구분되는 알제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자라났다. 알제리 땅과 프랑스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던 꼴롱에게 여러 종교와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용광로(melting pot) 알제리는 자신들의 고향이었다. 꼴롱은 자신을 스스로 유럽인, 프랑스인, 알제리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슬림 원주민들에게는 스페인인, 이탈리아인, 프랑스인이 아닌 유럽인이었고, 프랑스인에게는 알제리인이었다. 오늘날 알제리인은 독립된 국가 알제리의 시민들을 의미한다. 고향인 알제리를 떠나자 알제리 프랑스인은 사라졌고 지중해를 건너 프랑스에서 피에 누아르로 다시 태어났다.

3. 알제리 전쟁과 모국의 배신

1954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식민지 베트남을 상실했고, 알제리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알제리에 대한 지지는 유지되고 있었다. 망데스 프랑스(P. Mendès France) 정부는 제네바 협정을 통한 인도차이나 전쟁의 종결, 모로코와 튀니지의 독립을 위한 협상 등의 탈식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결단력을 발휘했다. 1954년 6월 망데스 프랑스 정부가 출범했을 때, 알제리 무슬림 의원들은 개혁적인 정부의 탈식민 정책에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망데스 프랑스는 취임식 연설에서 “알제리는 프랑스이다”라고 선언할 만큼 알제리 독립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²⁰⁾ 그런데도 여러 개혁이 내무부 장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에 의해 준비되었다. 9월 미테랑은 알제리 도의회 선거에서 원주민에 대한 차별 없이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고, 10월에는 비밀리에 봉기와 전쟁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

20) Charles-Robert Ageron, *De l'Algérie française à l'Algérie algérienne*, p. 441.

집하기 위해 알제리를 방문했다. 전쟁의 발발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낀 그는 알제리인을 위한 국립행정학교 설치, 원주민과 정착민이 혼합된 지역의 개혁, 프랑스의 도로 편입되어 있는 알제리 지위에 관한 수정 등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개혁 추진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1월 1일 독립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FLN(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이 봉기하면서 알제리 전쟁은 개시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안전대책(mesures de sécurité)을 명분으로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공화국 보안 기동대(CRS) 20개 부대, 기동헌병대 10개 부대, 보병 5개 대대를 파견하였다.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1955년 1월 국무회의에서 알제리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개혁안은 크게, 첫째 내무부 내 알제리 정부를 통제하는 새로운 부서의 설립, 둘째 무슬림의 고위공무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립행정학교 설립, 셋째 원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알제리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 알제리와 프랑스 경찰의 통합원칙을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무슬림 문화의 독립성 인정, 학교에서의 아랍어 교육, 무슬림 여성의 선거권 보장, 행정구역 재편과 새로운 2~3개의 도 설치, 동화된 무슬림에게 차별하지 않는 선거 제도의 확립 등의 정책이 승인되었다.²¹⁾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제안은 무슬림과 유럽계 정주민 모두에게 거부되었다. 알제리에서 발행되는 신문 『알제의 소리』(*L'Echo d'Alger*)는 “개혁안들은 틀림없이 격렬한 논쟁과 불안을 낳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며²²⁾ 개혁안은 불확실한 미래로 나가는 핑계이자 회피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알제리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난, 1955년 10월 프랑스 공공 여론조사국(Institut français d'opinion publique)에 따르면 본토 프랑스인의 49%가 알제리는 프랑스의 도로 남아있으리라 전망하였다. 같은 해 4월 『현대지(Les Temps modernes)』에 실린 여론조사는 프랑스 좌파들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좌파란 어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식민주의와 관련된 질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당신은 정말로 어떤 사상과 현실에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 13%만이 전쟁으로 응답했을 뿐 나머지는 독재자(12%), 파시즘(12%), 전횡(10%), 사회적 불평등(10%),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9%), 자본주의(8%), 교권주의(3%), 식민주의와 인종주의(3%) 등에 반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여론

21) 1955년 총 658,166명의 알제리 선거인에서 무슬림은 69,903명(12.3%)에 불과했다.

22) 재인용. Charles-Robert Ageron, *De l'Algérie française à l'Algérie algérienne*, p. 446.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알제리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좌파들은 초기에는 전쟁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전쟁이 격화되고 사르트르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반전 운동, 반식민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여론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FLN 조직원에 대한 고문뿐만 아니라 협력자를 포함해 무차별하게 시행되는 민간인에 대한 고문에 대한 폭로는 반전여론을 크게 자극하였다.²³⁾ 이 시기의 알제리 평화, 반전운동은 제3세계주의나 반식민주의에 기댄 것이 아니라 전후 유럽에서 성장한 반과시즘 문화에 바탕을 두었다. 해외령 영토에서 발생한 식민지 독립은 적어도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불과하였고, 프랑스 특유의 공화주의 문화는 알제리 전쟁을 마주 보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은 알제리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았다.

알제리 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던 1957년 6월 ~1958년 5월까지 두 명의 총리가 내각을 구성했지만, 안정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해산하였다. 결국, 기독교 민주당의 플리믈랭(Pflimlin)이 새 총리가 되면서 드골을 비롯한 명망가들의 정치적 협력을 끌어냈다.

프랑스의 알제리(Algérie française) 수호자들은 FLN과의 협상에 나선 플리믈랭 정부에 대해 처음부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4공화국이 수립된 1946년부터 프랑스 모국 정부와 알제리 프랑스인들 사이의 갈등은 증폭되어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 사회의 개혁, 즉 원주민들과 유럽계 정주민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지만, 알제리 프랑스인들은 개혁의 요구에 반발할 뿐 특권을 포기하는 것에는 오지부동이었다.

1958년 5월 13일 알제리 쿠데타가 일어났다. 라울 살랑(Raul Salan), 에드몽 주휴(Edmond Jouhaud), 자크 마쉬(Jacques Massu) 등이 쿠데타를 감행하였고 자크 수스텔(Jacques Soustelle)이 지배하는 공안위원회가 수립되어 알제리를 사실상 지배하였다. 쿠데타의 주동자인 군 장성들은 대부분 인도차이나 전쟁, 제2차 중동전쟁 등의 식민지 전쟁에 참전했던 인물들이었다. 쿠데타 발발하고 며칠 후, 장군들은 정주민, 원주민 모두가 프랑스를 향한 애국심을 선전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을 개최하였다. 알제의 광장에 모인 열광적인 군중들은 살랑과 함께 드골의 이름을 외치며,

23) Claude Liauzu, *La société française face au racisme - de la Révolution à nos jours* (Paris: Editions Complexe, 1999), pp. 134-135; Claude Liauzu dir., *Violence et colonisation* (Paris: Syllepse, 2003), pp. 137-139.

그의 정치적 복귀를 호소하였다. 군인들과 대게릴라 전투에 참여했던 예비군은 광장에서 히잡을 불태우며, 이슬람교와 알제리 전통에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여성들은 원주민 여성들이 히잡을 불 속에 던지는 것을 큰 소리로 응원하였다. “프랑스는 이곳에 남을 것이다”라는 환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6월 4일 드골은 알제리를 방문하면서 그 유명연설 “당신들을 이해합니다”를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선언하였다. 정주민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그해 9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80%의 본토 프랑스인의 지지와 96%의 득표율을 획득한 드골의 승리는 예정된 것이었다.

1958년은 알제리 정주민, 원주민 모두에게 중요한 기점이었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제3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족주의 운동을 외면할 수 없어서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지지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식민지는 더는 지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체제로 평가받았다. 1959년 유엔 총회가 알제리의 독립을 위한 계획을 10월부터 실행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압력은 높았다.

국제적으로 알제리의 식민지배에 비난이 쏟아지고, 전황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프랑스 알제리의 지지자들은 살랑 장군을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공안위원회는 알제리 정착민들에게 영향력 지닌 군부 내 장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바, 실질적으로 알제리 내 주요 도시의 거점들을 지배하였다. 드골 정부에게도 군인들의 지지는 불안하게 출발한 정부를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군부의 고위인사들이 알제리의 군사적 점령을 요구하면서 불안한 정치적 동거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점차 프랑스군이 FLN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드골로서는 알제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 장군들을 제압하기 위해 서라도 알제리 독립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59년 6월 5공화국의 초대 총리인 미셸 드브레(Michel Debré)는 알제리의 점진적인 개혁을 제안하였다. “알제리는 고유의 특성을 획득할 것이다”라며 무슬림과 정주민 사이의 상호 보장에 바탕을 둔 새로운 행정제도 수립을 계획하였다. 알제리에 관한 드골의 구상은 크게 세 가지 형태였다. 첫째, 프랑스와 완전히 단절하는 분리 독립, 둘째, 프랑스에 완전히 흡수 통화되는 프랑스화, 셋째, 프랑스로부터 독립적인 알제리인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프랑스는 경제, 교육, 국방, 외교를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국민투표를 통해 수립된 정부는 알제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며, 다양한 종족의 커뮤니티가 서로 공존할 것이다. 드골은 알제리인의 자결

권(droit des Algériens à l'autodétermination)을 인정하고, 유럽계 정주민에게 알제리 내 아랍, 모자랍(사하라 유대인), 그리고 카빌인 공동체와 운명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알제리 내 프랑스 정주민 공동체는 프랑스의 영향력을 지중해 지역의 문화, 경제에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며 이슬람 영향권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벽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에게 망데스 프랑스처럼 탈식민화는 보호무역에 기초한 구질서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자유무역을 통한 국제무역으로 나아가느냐의 문제였다. 드골의 신념 속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프랑스는 종교적인, 인종적인 하나로 남아야 했기 때문에 알제리와 프랑스는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4. 정주민의 반란

1956년 2월, 총리, 기 몰레(Guy Mollet)는 알제를 방문했을 때 환영 퍼레이드가 한 창인 거리에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성난 군중과 마주하였다. 몰레가 알제리 신임 총독으로 조르주 카트루(George Cartroux)를 임명하면서 정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폭발하였다. 모로코 독립을 위해 모하메드 5세와 협상을 했던 카트루는 프랑스인의 알제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새 총독의 임명은 FLN과의 협상을 의미하였다. 몰레는 군중들이 던진 썩은 야채와 주스, 와인 등의 세례를 받으며 떠날 수밖에 없었고 정주민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독은 다시 로베르 라코스트(Robert Lacoste)로 교체되었다. 라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가 점령당했을 때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프랑스 구사회당(SFIO)을 대표하는 공화주의자였다. 또한, 그는 수에즈 운하 위기로 촉발된 제2차 중동전쟁에 참전한 장군이었는데, 프랑스의 알제리 수호를 위해 FLN 탄압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라코스트의 정치적 행적이 보여주듯이 알제리 전쟁기 프랑스의 공화주의와 식민주의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었다.²⁴⁾

1958년 5월 13일 발생한 쿠데타와 동시에 대규모 정주민 군중이 모인 집회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이미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주민들의 정치조직들은 1959년 9월 16일 “알제리인의 민족자결권(droit des Algériens à l'autodétermination)”을 인정한 드골의 선언을 드

24) Claude Liauzu dir., *Violence et colonisation*, p. 130.

꿀의 배신으로 간주했다. 58년 6월 알제에서 “당신들을 이해합니다”라고 했던 드골에게 배신감을 느낀 정주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1848혁명 이후 유형지로 보내진 정치범, 1871 파리코뮌 참가자 등이 정주한 알제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공화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좌파 이념에 주민들은 더 호응했다. 그러나 알제리 전쟁과 함께 전통적 정치성향을 버리고 새롭게 정치화되었다. 유럽계 정주민은 자신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병대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농촌지역에서 시작된 군사작전은 대도시까지 확대되었는데, 전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정주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하고 반정부 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의 정치적 목적은 무엇보다 알제리의 주권을 수호하는 데 있었다. 식민모국이 자신들의 주권에 무관심하며 외면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급진화된 정주민은 독자적인 그룹으로 ‘부대’를 조직해 알제리의 좌파 정당들과 피를 흘리는 싸움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프랑스 공산당을 지지해온 항만노동자, 미숙련 노동자가 공산당의 노선을 거부하고 ‘프랑스인의 알제리’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로 변모했다.

1957년 알제리 총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낙하산 특수부대가 알제로 파병되면서 정주민은 준군사 활동에 협력해 전쟁에 직접 참전하였다. 참전은 곧 정치적 의식의 급진화로 이어졌다. 가장 격렬했던 분파 중 하나인 북아프리카 프랑스 연합(Union française nord africaine:UFNA)은 브와이에 방스(Boyer Banse)가 중심이 되어 약 1천 명의 조직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랑에서는 약 3백 명을 보유한 알제리인의 의지(Volonté algérienne)가 자경단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포퓰리즘적 정치 활동의 폭을 넓혀갔다. 튀니지와 국경을 접하는 북동부 항구도시 본(Bône)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알제리 친선협회(Amicale française de l'Algérie)는 비록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조직원이 1천여 명에 달했다. 1955년 결성된 알제리와 사하라 전우회(Comité d'entente des anciens combattants d'Algérie et du Sahara)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참전한 피에 누아르 베테랑 민간인들을 소집하였다.

특히, 대학생이 중심이 된 조직들이 가장 활발히 운동을 전개하였다. 알제리 프랑스의 주권 유지 대학생운동(Mouvement universitaire pour le maintien de la souveraineté française en Algérie)은 초기에는 교수들의 영향력이 컸으나 갈수록 학생들이 자신들의 운동으로 만들어나갔다.²⁵⁾

25) Sung-Eun Choi, *Decolonization and the French of Algeria: Bringing the settler colony home* (London: Macmillan, 2016), pp. 43-45.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상과 같은 정주민 정치 단체들이 시민들 사이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것은 아니었다. 비록 정주민 주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암묵적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여러 단체들은 고립되어 있었고 단일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것은 경찰의 감시와 통제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인의 알제리 저항기구(Organisation de Résistance de l'Algérie française), 프랑스 재건 위원회(Comité de Restauration française)등과 같이 노골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알제리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은 불법화되며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비밀군대조직이었던 OAS는 프랑스 본토와 식민지의 군부 내에 지원세력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위의 단체들은 준군사조직, 비합법 지하조직도 아니었고 군부의 지원도 없었다. 프랑스 본토에서도 프랑스인의 알제리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청년민족(Jeune nation:1949~1958), 프랑스의 알제리 재건과 안보를 위한 연합(Union pour le salut et le renouveau de l'Algérie française) 등의 극우단체들은 알제리 내에서의 지지자를 구하였다.²⁶⁾ 청년민족을 비롯한 프랑스 극우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반공주의, 반유대주의, 반민주주의(보통선거 반대), 전체주의 등의 성향을 보였다. 이들의 활동이 특히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식민지 독립전쟁들이었다. 변호사이자 알제리 프랑스의 열렬한 지지자인 전 총독, 수스텔에 의해 창립된 '프랑스인의 알제리 재건과 안보를 위한 연합'은 가장 정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이 단체들은 정주민들의 정치적 힘을 공개적으로 아래서부터 조직한 데서 OAS와 차이를 보였다.

가장 급진적인 정주민들이 소수의 과격 분파에 불과한 단체에서 활동하였다면, 다수의 정주민들은 국토단(L'unité territoriale: UT)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정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1955년 수스텔에 의해 설립된 이 단체는 군과 나란히 작전을 수행했던 준군사조직으로 피에 누아르들을 예비군으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58년에는 3만 5천여 명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랑에는 약 2만여 명이 조직되어 있었다.

국토단은 예비군이었지만 때로는 전투도 하는 위험한 준군사활동에 배치되었다. 공공건물 경비업무, 도로교통 통제업무, 대중 교통시설에서의

26) 프랑스의 대표적 신우익 인사인 알랭 브누아(Alain de Benoist)가 극우단체인 민족주의자 학생 연합(Fédération des étudiants nationalistes, FEN: 1960~1967)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도 프랑스인의 알제리를 위한 투쟁이 동기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Pierre-André Taguieff, *Sur la nouvelle droite* (Paris: Descartes & Cie, 1994).

검문, 검속업무, 도로차단 및 방어, 공공장소 감시 및 통제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알제리 협정이 본격화될 때부터 정치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콘스탄틴에서 5천~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총파업이 결행되었을 때, 이들 역시 참여하였고 오히려 주도하기도 하였다. 전쟁 중 사망한 병사들의 장례식 역시 이 조직의 단위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1960년 5월 국토단이 해산되자 단원들은 한층 급진화 되었고 본격적인 정치조직의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비시체제의 페탕주의자 슬로건, 즉 신, 노동, 가족, 조국을 소환했다. 1959년 조셉 오르티즈(Joseph Ortiz)에 의해 결성된 ‘프랑스 민족전선(Front national français: FNF)’은 1960년 1월 24일 알제의 바리케이드 주간(Semaine des barricades)의 주역이었다. 정주민은 점차 페탕주의자인 피에르 푸자드(Pierre Pujade) 같은 이데올로그에 의해 인도되었다. 전후 프랑스의 대표적 포퓰리즘 중 하나인 푸자디즘은 초기에는 중소 상공업 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급진적인 감세 주장을 하였으나, 점차 반유대주의,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으로 변모하였다. 푸자드가 만든 정당 ‘프랑스인의 연합과 박애(Union et fraternité française: UFF)’는 1956년 선거에서 52석을 얻었을 정도로 기존 정당을 위협하는 제3의 정치세력이었는데, 미래의 민족전선(FN) 지도자 르펜(Jean-Marie Le Pen)은 UFF 소속으로 이 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선출되었다.

1960년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드골 장군이 추진하는 정책을 군대는 이제는 기대할 수 없다. (...) 군대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회가 오지 않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명확한 상황이 생긴다면 군대는 그 힘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며²⁷⁾ 쿠데타 가능성을 암시한 마쉬 장군을 드골은 파리로 강제 소환하였다. 드골은 장군이 인터뷰에서 알제리에서의 프랑스 군사전략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시켰다. 알제리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쉬 장군을 수호하려는 대규모의 파업이 발생했고 드골은 배신자로 전락했다. 대다수의 정주민들이 프랑스 정부의 탈식민 정책에 드디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며 정부의 결정에 저항하였다.

1960년 1월부터 1961년 말까지 알제리는 극단적인 알제리 주권론자들에 의해 점령되었다. 이들은 프랑스인의 알제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프랑스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군과의 전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알제에서는 ‘카페(cafetier du Forum)’ 주인이자 오르티즈가 주도하는 프랑스 민족전선

27) 마쉬 장군과 인터뷰를 진행한 독일 신문은 *Süddeutsche Zeitung*이었다.

(FNF)과 1958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미래 OAS의 지도자가 될 피에르 라가야드(Pierre Lagayette), 장 자끄 쉬시니(Jean-Jacques Susini)가 이끄는 알제 학생연합(Association générale des étudiants d'Alger) 등이 중심이 되어 바리케이드의 주간이 발생했다.²⁸⁾ 대학생들은 먼저 알제 대학을 점거하며 봉기를 시작했고, 이에 호응한 정주민은 시내 중심거리까지 장악해 나갔다. 거리에는 '프랑스인의 알제리 만세'라는 표어들이 가득 메웠다. 폭동에 가까운 시위는 프랑스 본국에도 수많은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특히, 알제리의 국토단 예비군 일부가 봉기에 참여하면서 무장한 2천여 명의 군인이 거리를 장악했다. 청년 학생들과 함께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오르티즈는 일반 대표단 건물 근처에서 참호를 파고 군의 진압에 대응하였다. 많은 알제 시민들이 참호를 방문하며 '반란자'들을 지원했다. 봉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파병된 프랑스군을 동요시켜 프랑스인의 알제리를 지지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집회를 금지하고 시위대를 해산하고자 경찰과 군대를 동원했다. 하지만, 1월 25일까지만 해도 공수부대는 시위대를 구경만 할 뿐 진압을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바리케이드로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다. 1월 26일 알제를 방문한 총리 드브레가 공수부대는 발포 명령이 내려진다고 해도 시민을 향해 사격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할 정도였다.

한편,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제리 원주민을 향한 박애정신도 표현하였다. 그들은 무슬림과 함께하는 시위를 계획했는데, 만일 많은 무슬림이 시위에 참여한다면 봉기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프랑스인의 알제리에 동의하는 무슬림을 동원할 수는 없었고, 무슬림을 부정하는 자신들의 모순만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프랑스 본국 정부는 대규모 유혈사태가 예상되는 진압 작전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시위대가 고립되기 시작했을 때 군은 무기를 버리고 바리케이드를 책임추궁 없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약속을 해 주었다. 1월 29일 텔레비전 대통령 연설에서 드골은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칭하며 "비록 권력 찬탈을 꿈꾸는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결단적 행위에 배경이 내가 알제리에 대해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모두는 내가 결정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 다시 군복을 입고 나타나 대통령의 권위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28) *Le monde*, le 12 mai 1962.

1월 31일 군중이 새로운 바리케이드를 세우려 시도하면서, 격해진 시위대와 군인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군은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았다. 양측에서 각각 14명의 군인과 8명의 시위대가 사망했고, 군인 59명, 시민 33명이 다쳤다. 알제에서 사상자의 발생은 프랑스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바리케이드 주간을 거치며 프랑스 정부와 군은 누구를 위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의 목적이 불분명해지면서 알제리 문제는 과국으로 치달았다. 전쟁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 종결되어야만 했다. 바리케이드 주간은 본토 프랑스인들에게 피에 누아르는 이기적, 폭력적, 정의롭지 않다는 편견과 내전 때문에 프랑스의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을 낳았다.²⁹⁾ 좌파와 드골주의자 모두에게서 프랑스인의 알제리에 대한 지지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2월 1일 협상 이후 봉기를 주도 한 다수가 감옥에 갇혔다. 라가이야드는 바리케이드를 탈출해 공수부대원이 제공한 은신처에 피신하였지만, 곧 발각돼 수감되었고, 오르티즈는 스페인으로 탈출했다. 이렇게 바리케이드 주간은 끝이 났다.

그러나 바리케이드 주간은 1961년 4월 쿠데타의 서막이었다. 라가이야드는 곧 보석으로 석방되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961년 2월 살랑 장군과 함께 OAS를 결성해 쿠데타 계획을 수립했다. 4월 실행된 쿠데타는 프랑스 군부의 대부분은 알제리인의 프랑스를 지지하면서도 드골에 대해 충성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쿠데타 가담자들은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1968년에 이르러서야 사면되어 프랑스에 돌아갈 수 있었다. 드골은 프랑스 본토에서는 지지받았지만, 피에 누아르에게는 다시는 신뢰할 수 없는 대통령이 되었다. 알제리 탈식민화를 거치며 정주민과 프랑스 본토인 사이에는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벽이 세워졌다.

1960년 12월 드골이 알제리를 방문하는 동안 알제, 오랑, 콩스탄틴에서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FLN과 협상이 시작되자 유럽계 정주민은 드골 정부와 맞섰다. 정주민은 끝까지 알제리 독립을 거부하였다. 식민지 전쟁인 베트남전, 제2차 중동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페텔주의자, 파시즘의 후계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식민지 프랑스 정부를 전복해서라도 알제리를 지키고자 했다. 1961년 총리 미셸 드브레(Michel Debré)는 이스라엘 건국을 모델로 정주민과 원주민이 각각 분리된 국가를 건설하는 알제리 분할독립 계획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알랭 페레피트

29) William B. Cohen, "Pied-Noir Memory, History, and the Algerian War", p. 130.

(Alain Peyrefitte)가 중재에 나섰다, 실패하였다.

이제 알제리 민족주의자의 구호 ‘가방 아니면 관짝(La valise ou le cercueil)’처럼 정주민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알제리 민족주의자들이 길거리의 낙서, 유인물, 시위의 구호로 사용한 이 단어는 유럽계 정주민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아직 그들의 기억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³⁰⁾ 19세기 말 가방 하나를 들고 새로운 땅에서 삶을 개척해야 했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가방 하나만을 가지고 탈출해야 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야 했던 상실감과 박탈감은 이후 피에 누아르 정체성 형성에 큰 흔적을 남겼다.

5. 결론

프랑스에서 알제리 전쟁은 피에 누아르, 아르키(harki), 참전용사, 알제리 독립 자금을 전달했던 운반자, 전쟁 중 사상자의 가족, 알제리계 이주민 등에게 여전히 기억 전쟁(guerres de mémoires)을 불러일으키는 현재 진행형의 주제이다.³¹⁾ 알제리 전쟁을 무슬림 원주민과 유럽계 정주민의 내전으로 정의한다면, 과거를 둘러싼 기억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954년 5월 1일 파리의 해방을 축하하고, 독립을 원하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티프(Sétif) 사건처럼 알제리에서 두 공동체 사이의 공존은 불가능했다. 특히 무슬림 시위대를 무참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뿐만 아니라 유럽계 정주민 자경단이 가담한 것은 이들이 절대로 알제리를 무슬림 원주민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욕망을 명확히 드러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부터 이주하기 시작한 유럽인들은 원주민과의 동등한 공존을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알제리 전쟁이라는 과국을 불러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끌롱이라는 특권을 포

30) ‘가방 아니면 관짝’이라는 구호는 1945년 5월 오랑에서의 봉기 혹은 1946년 콘스탄틴에서 알제리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Hubbell Amy L., “«La valise ou le cercueil», un aller-retour dans la mémoire des Pieds-Noirs”, *Diasporas. Histoire et sociétés*, n°12(2008), pp. 199-207.

31) Éric Savarese, “Qu’est-ce qu’un rapatrié ? À propos des pieds-noirs rapatriés d’Algérie, de 1962 à nos jours”, *Actes des congrès nationaux des sociétés historiques et scientifiques*, no. 126(2007), pp. 204-216.

기하지 않았고,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 배제하기를 원했다. 1962년 고향에서 쫓겨나 지중해를 건넌 후 다시 태어난 피에 누아르에게 ‘프랑스의 알제리’는 공통된 전쟁의 경험과 기억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알제리를 둘러싼 프랑스인의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분열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피에 누아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의 불완전성에서도 잘 나타난다. 먼저 사전적 의미로 피에 누아르는 ‘비무슬림 알제리 모국송환자(Rapatrié non musulmans d’Algérie)’를 지칭하는데, 때로는 모로코, 튀니지 출신의 모국송환자를 포함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전쟁 중 프랑스군에 협력했던 아르키를 위한 자리는 없다. 알제리를 떠나 프랑스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같은 알제리 출신의 무슬림이 제외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에 누아르를 유럽계 정주민으로 정의할 경우,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등 유럽 출신의 정주민에게는 온전한 이름이 되지만, 오랫동안 알제리에 거주했고 프랑스인 국적이 부여되었던 유대인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1870년 크레미유(Décret Crémieux) 법령 이후 프랑스인으로 살아왔던 알제리 유대인 역시 모국송환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피에 누아르를 알제리의 프랑스인, 즉 프랑스 국적자로 정의한다면 유럽 출신의 정주민과 유대인을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게 된다. 한데 이 경우에는 1940년 비시정부가 실행한 크레미유 법령 폐지로 대표되는 유대인 박해와 차별의 역사가 망각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1963년 약 20만, 1965년 약 10만, 그리고 1960년대 말 5만 명으로 점차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알제리 독립 이후에도 프랑스가 아닌 알제리를 선택한 사람들의 존재이다.³²⁾ 알제리에 남은 유럽계 정주민은 피에 누아르로 불리지 않고, 그들의 흔적은 역사에서 사라져갔다. 이처럼 ‘피에 누아르’가 보이는 기호의 미끄러짐, 불충분함, 혼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알제리 식민지의 주인이자 지배자였던 유럽계 정주민들은 식민모국의 프랑스인들과는 다른 프랑스인들로 불안한 정체성을 보유한 집단이었다. 결국, 이들을 통해 알제리 식민주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다른 프랑스의 기억과 역사를 마주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 칼리지 초빙교수, mentend@gmail.com

32) Pierre Daum, *Ni valise ni cercueil: Les pieds-noirs restés en algérie après l'indépendance* (Paris: ACTES SUD, 2012), p. 13.

알제리 전쟁과 프랑스 정주민(settler)

주제어(Key words):

알제리 전쟁(Algerian War), 정착민(Settler), 피에 누아르(Pieds-noirs),
바리케이드 주간(semaine des barricades)

투고일: 2022.04.18 심사일: 2022.05.17 게재확정일: 2022.05.17

<국문초록>

알제리 전쟁과 프랑스 정주민(settler)

문 종 현

피에 누아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1962년 알제리 독립이라는 시대적 구분과 지중해 양안이라는 공간적 분할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2년 이전 피에 누아르는 알제리에 뿌리내린 유럽계 정주민이자 그 땅의 주인이었다. 유럽을 떠나 북아프리카에 정주한 이주민에게 프랑스 시민권은 인종적 특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었고, 무슬림 원주민에 대한 지배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보루였다. 알제리 독립 이후 알제리에서 쫓겨나 프랑스에 정착해야만 했던 피에 누아르에게 프랑스는 자신들을 배신한 조국이었고, 뿌리뽑혔다가 다시 뿌리내려야 또 다른 정주지였다. 탈식민 과정에서 모국송환정책은 준비되지 않았고, 조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유럽에서 알제리로, 알제리에서 다시 프랑스로 2번이나 고향을 떠나야 했던 피에 누아르는 박탈당한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간직한 복합적 종족성을 지닌 정체성 집단으로 프랑스 땅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박탈당한 고향에 대한 향수, 전쟁과 탈출의 기억을 간직한 채 피에 누아르는 프랑스 땅에서 본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며 거듭났다. 탈식민 시대 프랑스의 기억 전쟁(guerres de mémoires)의 주체로 소환되는 피에 누아르의 역사는 오늘날 프랑스 사회의 기억, 역사, 정치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피할 수 없는 과거이다.

<Abstract>

Algerian war and French settler

Moon Jonghyun

France was a settler colony in Algeria until 1962.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settler colonial history in French Algeria and explains the political and social setting from which the repatriate protagonists in this story emerged and out of which they forged a settler colonial Frenchness.

By definition settler societies were historically founded by exogenous migrants whose aim was to establish permanent residence on colonized lands. This desire for permanence inevitably led to the expropriation of land that was already inhabited by a native population. In Algeria the goal of eradicating Muslim Algerian presence was never fully attained by the French. Despite the removal of certain restrictions on the acquisition of French citizenship namely the renunciation of religious affiliation and adhesion to Qur'anic customs, political representation for the majority Muslim population remained within limited bounds after 1946.

When the Algerian War erupted on November 1, 1954, local militia activity sprouted across the major cities giving rise to homegrown popular movements that rejected what settlers perceived to be the inertia of mainstream political parties.

참 고 문 헌

1. 사료

알베르 카뮈, 김화영 역, 『이방인』 (서울: 민음사, 2012).

Le monde, le 12 mai 1962.

2. 단행본

박단 편, 『역사 속의 유로메나: 교류와 갈등의 역사』 (서울: 에코리브르, 2021).

쉴 망스롱, 우무상 역, 『프랑스 공화국 식민사 입문』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3).

Ageron, Charles-Robert, *De l'Algérie française à l'Algérie algérienne* (Paris: Editions Bouchène, 2005).

_____, “Le premier vote de l'Algérie musulmane : les élections du Collège musulman algérien 1919-1920”, in Charles-Robert Ageron (dir.), *Genèse de l'Algérie algérienne, Vol. 2* (Saint-Denis: Éditions Bouchène, 2005).

Bouchène, Abderrahmane, Peyroulou, Jean-Pierre, Tengour, Ouanassa Siari, Sylvie, Thénault (dir.), *Histoire de l'Algérie à la période coloniale, 1830-1962* (Paris: Découverte - Barzakh, 2012).

Choi, Sung-Eun, *Decolonization and the French of Algeria: Bringing the settler colony home* (London: Macmillan, 2016).

Cohen, William B., “Pied-Noir Memory, History, and the Algerian War”, in Andrea L. Smith ed., *Europe's Invisible Migrant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3).

Daum, Pierre, *Ni valise ni cercueil: Les pieds-noirs restés en algérie après l'indépendance* (Paris: ACTES SUD, 2012).

Kateb, Kamel, *Européens, « indigènes » et juifs en Algérie, 1830-1962* (Paris: PUF, 2001).

Liauzu, Claude dir., *Violence et colonisation* (Paris: Syllepse, 2003).

_____, *La société française face au racisme: de la Révolution à nos jours* (Paris: Editions Complexe, 1999).

Muyl, Marie, *Les Français d'Algérie : socio-histoire d'une identité,*

Thèse (Univ. Paris I, 2007).

Stora, Benjamin, *Algérie 1954, une chute au ralenti* (Editions de l'Aube, 2012).

_____, *Histoire de l'Algérie coloniale(1830–1954)* (Paris: La Découverte, 2004).

Taguieff, Pierre-André, *Sur la nouvelle droite* (Paris: Descartes & Cie, 1994).

3. 논문

Valette, Jacques, “La guerre des barrages frontaliers en Algérie”, *Guerres mondiales et conflits contemporains*, no. 269(2018).

Dodman, Thomas, “Tropiques Nostalgiques: Fatal Homesickness in French Algeria”, *Historical Reflections*, vol. 39, no. 3(2013).

Baillet, Pierre, “L'intégration Des Rapatriés d'Algérie en France”, *Population*, vol. 30, no. 2(1975).

Smith, Andrea, “Settler Sites of Memory and the Work of Mourning”, *French Politics, Culture & Society*, vol. 31, no. 3(2013).

Lyons, Amelia H., “French or Foreign? The Algerian Migrants' Status at the End of Empire (1962–1968)”, *Journal of Modern European History*, vol. 12, no. 1(2014).

Kulkarni, Mangesh, “The Ambiguous Fate of a Pied-Noir: Albert Camus and Colonialism”,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32, no. 26(1997).

Savarese, Éric, ““Amère Patrie”: Une note sur le retour des Pieds-Noirs en Algérie”, *Critique Internationale*, no. 47(2010).